

'낙시터 물고기 떼죽음 대책 마련해 달라'

밤발낙시터 대표, 가산노블리제 CC 공사현장에 보상 요구

낙시터 상류지역에 공사중인 골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기름으로 인해 낙시터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낙시터 주민이 골프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산면 마전리 밤발낙시터 주상은 대표는 7월부터 밀려든 토사와 황토를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물고기는 폐사하고 병들어 죽고 있어 영업이 어려워졌으며 골프장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포천시청에게 낙시터 훼손에 따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주 대표는 낙시터 훼손에 따른 분장이라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낙시터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낙시객은 줄어들어 현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시공사 유전건설과 수 차례에 걸쳐 유선 통화도 하고 담당과장을 만나 면담도 해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밤발낙시터 물고기들이 장마철에 흘러든 토사와 기름에 피부병이 발생되어 죽어 있다.

보았지만 뚜렷한 해결책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본인의 사업장에 큰 피해를 내고 생존을 위협하는 시행사 코리엔랜드 시공사 유전건설과 협의하여 보상조치

(주)가산노블리제CC 현장은 공문을 통해 "우선 당현장의 수방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태풍(갈매기)등의 영향으로 귀 낙시터로 유입되는 하천에 휴탕물이 일부 유출되어 민원인에게 크고 작은 심려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낙시터에서 언급한 이번 호우로 인한 당현장에서의 산태 및 기름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7월 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토목공사 현장인 가산노블리제CC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에 공사현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의 설치 등 완벽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고 가산노블리제CC 현장 관계자들은 설제 도면대로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전기업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상 바이올린 부문 김은아 양 수상

제1회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콩쿨대회에서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디반트 예술기획이 주관한 제1회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콩쿨 대회가 8월23일 오전10시에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부문으로 나뉘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별로 경연을 벌였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포천

시청소년오케스트라와 공연시 협연 기회가 주어지고, 각 악기 수상자에게는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 정단원 자격이 부여된다.

김용배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이종욱 한국 클라리넷 협회 부회장, 황대진 서울예고 음악사, 테너 엄정행, 소프라노 석현수, 이진영 경북대학 음악과 겸임교수 등 각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입상자 27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대상 바이올린 부문 김은아(고양예고3) 피아노 부문 대상 김보민(송우초5) 초등1~3 금상 이지희(태봉초3) 은상 이현이(신봉초3) 동상 이다정(포천초1) 초등4~6 금상 강승연(가좌초6) 은상 사공혜연(신봉초5) 동상 이유진(태봉초6) 중등부 금상 방해지(포천여중2) 은상 윤길중(효자초3) 동상 이해림(고암중3) 고등부 금상 박근태(홍성림림) 은상 이해림(고양예고3) 동상 지서영(경민고3) 관악악부 대상 송재신(송우중3) 초등부 금상 강승희(가좌초6) 은상 김지희(회천초4) 동상 임향하(회천초4) 중등부 금상 허진솔(보로중3) 은상 최지욱(수락고2) 동상 정서림(백석중3) 관악악부 금상 강혜린(포천여중2) 은상 임예슬(대진여고2) 동상 이정욱(포천초6) 성악부 금상 주연슬(선화여중2) 은상 박에서(고양예고2) 동상 서아람(인천예고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서논술캠프 후기

부모와 함께 한 프로그램

경기도포천교육청에서 주관한 2008 여름독서논술캠프가 8월20일과 21일 1박2일간 영평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교육과 자연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영평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논술캠프는 힘차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매미소리를 들으며 수업도 하고 학교 뒷산 숲속 약수물이 흐르는 곳에서 실시한 야외학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논술캠프 프로그램은 동시 동화구연 일기, 논술, 공연관람, 나의 주장 발표, 풀든 벨 등으로 다양한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학

생과 부모가 모두 학생이 되어 교육을 받았다.

교육열만큼이나 부모들의 논술실력은 대단했다. 독서교육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창의력과 통찰력 및 변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이라고 강조하신 영평초등학교 이호연 교장선생님의 교육에 세이가 독서논술캠프가 끝난 후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박복준 주부영어학원 이사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디반트 예술기획이 주관한 제1회 포천시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콩쿨 대회가 8월23일 오전10시에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시골학생들의 꿈을 향한 열정

도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특별한 여름나기'

백운계곡이 흐르는 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도평초등학교(교장 양통규)는 43여명의 학생들이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냈다.

35일간의 긴 여름방학 동안 도평초등학교는 과학캠프, 음악캠프, 독서논술캠프, 기초학력회합캠프, 기초학력 튼튼 캠프, 방과후보급자리 프로그램 등을 시기를 조절하여 개설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자체 예산을 비롯하여 교육청, 대학생멘토링 활동 및 포천시 예산을 지원 받아 모두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캠프는 열기구제작만들기, 손가락화석 만들기, 거북선 만들어 보기 등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 동안 12명의 5~6학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과학탐구수업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몰두하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음악캠프는 대학생멘토링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도평초등학교 43명의 학생들은 35일간의 여름방학동안 무료로 운영되는 과학캠프, 음악캠프, 독서논술캠프, 기초학력회합캠프, 기초학력 튼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8월 1일까지 5일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중심으로 이리론과 감상, 합창, 오페라, 리코더, 단소, 드럼 및 핸드벨 연주등의 1:1 실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음악수업을 진행했다.

독서논술캠프는 책 퍼즐 맞추기 게임, 책갈피 만들기, 미니북 만들기 등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독서호미를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도평초 양통규 교장은 "학교의

교훈처럼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꿈을 탐색하여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도평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평초등학교에서는 올해 겨울방학에도 어린이들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이 겨울 방학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현장 고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비만 오면 걱정

박춘형(포천농민회 홍보실장)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들의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비가 오면 배수로가 막혀 물이 넘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 농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 농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

부분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올려 내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며 배수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 농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

한 공무원이 배수로 정비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면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했다. 농촌공사 사수실은 찾아야 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이 많다.

농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포천시 전체 피해액은 10억 원이며 그중 군부대 피해액이 8억 원을 차지하고 포천시 일반 수해가 5억원 미만이다 자체 예산으로 응급복구를 한다는 설명과 피해액이 32억원 이상이 돼야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구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촌공사 연천,포천사무소의 책임자는 기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복구는 완료했고 사람이 해야 하는

포천시청 관계자는 경지정리 지역은 농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인데도 농민들의 원성을 포천시청 미룬다며 포천시는 비경지정리지역을 담당하며 포천 시도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피해농가의 경우도 객관적으로 수해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대다수 농민이 피해를 보아야 수해지역으로 인정되어 복구비나 수해를 입은 농산물의 보상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배수로의 유실이나 범람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농가의 관리부실로 치부되어 정신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경 포천시상록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축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상록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분, 멀리서 축전과 화환으로 축하해 주신 분,

성금으로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천시 상록회는 상록회 정신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포천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명단		회원 명단	
▶ 회 장: 최 호 열	▶ 총무이사: 신 형 숙	▶ 김경남	▶ 고경자
▶ 상임부회장: 박 노 현	▶ 홍보이사: 송 태 고	▶ 김영모	▶ 김영춘
▶ 내부부장: 임 노 현	▶ 재무이사: 송 은 미	▶ 나승협	▶ 문병기
▶ 외부부장: 조 정 선	▶ 조직이사: 원 용 식	▶ 박송근	▶ 박순식
▶ 감사: 이 수 현	▶ 기획이사: 권 용 오	▶ 양한조	▶ 유옥자
▶ 감 사: 서 수 현	▶ 봉사1이사: 연 호 숙	▶ 이계순	▶ 이동훈
▶ 사무국장: 김 영 복	▶ 봉사2이사: 김 양 숙	▶ 이장표	▶ 이혜동
▶ 사무차장: 우 상 분	▶ 사업이사: 김 철 수	▶ 장미향	▶ 장영수
		▶ 정준옥	▶ 최은실
		▶ 최은실	▶ 황영철
		▶ 최은실	▶ 황영철

(사)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 상록회